

순천시, 마을하수처리장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



올해 2억원 투입 5곳 감시시설 설치·운영 중 시설물 기능고장·민원 발생 신속 대응 마련

순천시는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2023년까지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산간오지마을 48곳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수시로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특성상 긴급한 시설물의 기능고장이나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마을하수처리장은 대규모 공공하수

처리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상시 점검이 어려워 그동안 개선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2억원을 투입해 승주읍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에 원거리 시설의 감시와 제어가 가능한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빈번한 마을하수처리장 5곳에 감시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연차적으로 나머지 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하수도과 안동훈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관리가 어려웠던 읍·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과 자연이 만족하는 하수처리로 건강한 시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전남 도내 최고 행정도시로 '우뚝'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1위 달성 포상금·상사업비 1억7500만원

여수시가 2021년 전남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총점 2,256점을 획득해 당당히 1위에 오르며 전남 도내 최고 행정도시로 우뚝 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로 포상금 2500만 원과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2위와 3위에 머무르다 올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해 그 의미 더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4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

단체 종합평가 제도다. 시·도간 상호 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성부분과 정량부분으로 나눠 발표한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성지표 26개 중 14개가 도 우수사례에 인용되었고 이 중에서 행안부 우수사례로 4개가 최종 선정될 만큼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사회성과 보상 기반조성(기획예산과), 소상공인 정책(지역경제과), 혁신지향 공공조달(회계과), 총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재난안전과)이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일부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을 정밀히 분석해 지표담당자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내년에

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예년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해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준 결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과 함께 보다 나은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2020년 정부합동평가 3위로 받은 상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문수종합사회복지관과 소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사업비도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여수=오상호기자



농협 보성군지부, 이동상담실 '호응' 관내 농업인 60여명 대상 법률적 불편·소비자문제 해소

농협 보성군지부(지부장 박도재)는 12일 보성농협 만평지점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6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의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문제 해소를 위해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열린 농협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성로 고객지원팀장과 한국소비자원 문형주 조정관 전문가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개별상담 시간을 가졌다.

박도재 지부장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농업인이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여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보성=김택순기자

고흥군, 열대거세미나방 발견에 따른 피해 최소화 지도

조기발견·신속방제가 피해예방에 중요

고흥군은 12일 금산면, 풍양면, 점암면 옥수수 주산단지 재배포장에서 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되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매년 중국에서 날아와 옥수수, 수수 등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으로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2주 빨리 비래하였다. 열대거세미나방 방제는 성충 발견 확인되면 10~14일경 애벌레가

알과 줄기를 가해하는 초기에 등록 약제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애벌레는 야행성이므로 가능한 해프기 전이나 해지고 난 후 방제 효과가 높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성충 발견 포장 및 인근 포장 중심으로 정밀 집중 예찰을 강화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방제 약제지원과 농업인 대상 예찰·방제 리플릿 배부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열대거세미나방은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옥수수 등 벼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적극적인 예찰과 적기방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폐자원 회수로 세수 기여

음식물 폐수 유분 및 기타 폐자원 판매 연간 2억 8천 9백만 원 수입

광양시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재활용 선별장에 연간 3,224톤의 재활용 폐기물이 반입되며 79% 선별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연간 16,098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반입 전량 처리 후 부산물을 첨가해 유기성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자원 재활용 및 퇴비 부산물 판매 금액은 2억 8천 9백만 원으로

전역 시 세입 조치하고 있다. 시는 폐자원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선별장에 5억 5천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선별장 기능개선 및 작업자 근무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으며, 본 공사가 끝나면 현재 79%인 재활용 선별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부분에는 12억 원의 시비를 확보해, 음식물 폐기물

자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선진지 견학과 각종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시설물 운전이 되도록 분야별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된 수변전설비 증설공사 1억 2천만 원, 탈수기 성능개선공사, 퇴비 생산라인 정비 등 4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 중이다. 전년도에 투자한 사업의 기대효과로, 음식물 폐수의 유분을 분리 후 응집 탈수 과정을 통해 고흥도의 폐수를 침출수와 병합해 처리하면서 방류수 수질(SS 기준)을 50% 낮추는 기대효과를 가져왔다. 광양=심종섭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

